

## 이슈

2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76호

내가 왜 떴게?

하임이가 올만도 했네



●백지영, 섭집아기 : 엄마가 가수면 아기는 참 좋겠다. 프로 가수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매일 잠들 수 있을 테니. 그런데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백지영이 방송에서 들려준 28개월 된 딸 하임이 애기를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닌가 보다. 백지영은 “하임이에게 자장가로 섭집아기를 불러주면 울더라”고 했다. 다른 출연자들의 요청에 즉석에서 섭집아기를 부른 백지영. 결과는 “어른들이 들어도 슬프네”였다고. 자장가를 가슴에 총 맞은 사람처럼 부르니까 그렇죠!

아직도 놀라세요?



●강다니엘, 아이돌픽 : 2등을 모르는 남자. 강다니엘이 스타투표 웹사이트 아이돌픽 9월 4주 차에서 11만212 포인트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이 서비스가 최근 개편을 했다는데 개편을 해도 변함없는 결과다. ‘연말 시상식을 휩쓸 것 같은 아이돌’ 투표에서도 4만553 포인트를 얻어 역시 1위. 2관왕 강다니엘이시다. 픽! 당연한 거 갖고 놀라진.

한 끼에 소 한 마리 똑딱



●이미셀, 한달수입 :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냐?”.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의 단골질문이다. 이게 뭐 그리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가수 이미셀에게 물었다. 이미셀은 “한 끼에 소 한 마리 먹을 정도는 된다”고 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엄청난 대식가네 싶겠지만 여기서 ‘소 한 마리’는 진짜 소 한 마리가 아니라 고깃집의 ‘소 한 마리’ 메뉴. 이미셀의 답변이 재치있다. 개인적으로는 ‘닭 한 마리’를 더 좋아합니다만.

출산 후 트랙 복귀해 세계육상선수권 우승…‘엄마의 힘’ 증명한 프라이스 & 펠릭스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두 엄마!

프라이스, 2017년 출산 작년 복귀  
100m 10초71 올해 종목 최고기록  
“33세에 아이를 안고 꿈을 이뤘다”  
펠릭스, 혼성 1600m 계주 세계신  
“힘든 과정 극복…더 강한 나를 발견”

‘어머니는 강하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3·자메이카)와 엘리슨 펠릭스(34·미국)는 출산 후 트랙에 복귀해 금메달을 목에 건 주인공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간절함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였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7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의 기록은 올 시즌 이 종목 세계 최고 기록이다. 플로런스 그리피스-조이너(미국)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세계기록(10초49)과는 격차가 있지만, 프레이저-프라이스가 2012년 세운 개인 최고기록(10초70)과는 불과 0.01초차이다.  
이로써 프레이저-프라이스는 2015년 베이징 대회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 대회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통산 8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자 10번째 메달(금 8개·은 2개)이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키가 152cm로 작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스프린터로 군림하고 있다. 2011년 1월 결혼한 뒤 2017년 3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시즌을 쉬겠다고 선언했고, 그해 8월 아들 지온을 낳았다. 출산 후 복귀한 첫 시즌인 지난해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차츰 출산 이전의 기량을 되찾으며 메달 전장을 밟았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33세의 나이에 아이를 안고 이곳에 다시 섰다. 꿈을 이뤘다”며 “아들 지온과 남편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복귀할 때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아들과 남편은 달랐다”고 강조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우승한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가 아들 지온을 안고 활짝 웃었다. 조금은 놀란 듯한 아이의 표정이 귀엽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또 한명의 ‘어머니’ 엘리슨 펠릭스(작은 사진)도 혼성 1600m에서 정상에 올랐다.

했다.  
펠릭스도 어머니의 힘을 아낌없이 뽐냈다. 혼성 1600m 계주에서 윌버트 런던(남), 코트니 오펜(여), 마이클 체리(남)와 짝을 이뤄 3분09초34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펠릭스도 출산 후 트랙에 복귀해 우승을 차지한 사례다. 이번 우승으로 12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사인 볼트(자메이카·11개)의 세계선수권 최다 금메달 기록을 넘어섰다. 펠릭스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선수권 최다 메달리스트(17개)다. 펠릭스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보다 더 강해진 나를 발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함께 ‘어머니의 힘’을 보여준 프레이저-프라이스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나와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58세 배우 ‘김응수 신드롬’

13년전 출연 ‘타짜’속 광철용 인기  
다양한 버전의 짤, 유튜브서 화제  
2일 ‘라스’ 출연…예능 러브콜 쇄도

58세의 배우 김응수가 데뷔 30여 년 만에 ‘뚝박의’ 스타덤에 올랐다. 스스로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었다”며 놀랄 정도다. 13년 전 출연한 영화 ‘타짜’속 캐릭터 광철용이 1020세대로부터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맞은 전성기다.  
김응수가 얻은 인기는 9월 개봉한 ‘타짜: 원 아이드 잭’과 맞물려 시작됐다. 누리꾼은 2006년 ‘타짜’ 1편에 새삼 관심을 쏟았고, 개성 강한 ‘도박판 보스’ 광철용을 ‘발

굴’해냈다. 지난해 배우 김영철이 2002년 출연한 드라마 ‘아인시대’속 캐릭터 김두한과 명대사 “사팔라”로 재평가 받으면서 전성기를 맞은 상황과 비슷하다.  
김영철처럼 김응수의 ‘타짜’ 출연 모습은 다양한 버전의 ‘짤’(온라인상 주고받는 짧은 영상)로 만들어져 SNS와 유튜브에서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영화에서 비장하게 내뱉는 “마포대교는 무너졌나? XXI!”, 마음에 품은 여성을 향해 “나도 순정이 있는 남자”라고 읊조리는 등 대사를 활용한 영상과 사진이 단연 화제다.  
스타들만 켜는다는 ‘가짜 SNS 계정’ 피해도 입었다. 최근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SNS에는 3일 만에 10만 명이 팔렸지만, 이



김응수가 2006년 영화 ‘타짜’속 광철용의 “묻고 더블로 가” 등 대사를 패러디한 영상 등으로 뒤늦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김응수가 출연해 2일 방송하는 MBC ‘라디오스타’의 예고편 장면. 사진 | MBC 방송편성

내 허위 계정으로 밝혀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온라인 입소문을 노리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광고 출연 제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응수는 극단 묵화 무대에 오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7년간 연기를 익힌 뒤 1996년 영화 ‘깡패수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검사와전’ ‘공작’ 등 30여 편의 영화와 ‘추노’ 등 40여 편의 드라마에서 악역과 소시민 캐릭터를 넘나들며 묵묵히 활동해

왔다.  
뒤늦은 전성기 덕분에 예능 러브콜도 이어진다. 2일 밤 11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그는 사전 녹화에서 “갑자기 아인(철) 드래곤(웅)이 됐다”는 너스레로 소감을 밝혔다. 최근 출연작인 영화 ‘양자 물리학’과 tvN 수목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도 뚝박의 ‘광철용 열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한국남자들 LPGA 13승…15승도 사정권이야

허미정 우승으로 대회 50% 독식  
남은 6개대회서 3승팬 또 새역사

‘승률 50%.’  
한국 선수들이 역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다승 합작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올해 열린 26개 대회 가운데 절반인 13개 대회를 점령하면서 2015년과 2017년 합작한 15승을 간발의 차이로 뒤쫓고 있다.  
허미정(30·대방건설)이 9월 30일(한국시간) 열린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2승째를 거두면서 올해 한국 선수

들의 우승 횟수는 ‘13’으로 늘어났다. 지은희(33·한화큐셀)가 개막전이었던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양희영(30·우리금융그룹)과 박성현(26·솔레이),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내리 승전보를 전하며 본격적인 가속도를 냈다.  
우승 레이스는 쉼 없이 전개됐다. 고진영이 4월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하고 첫 다승자 반열에 올라섰고, 이후에도 김세영(26·미래에셋)과 이정은(6(23·대방건설)이 챔피언 명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승자 배출도 이어졌다. 박성현과 김세영이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과 7월 마라톤 클래식에서 2승씩을 챙겼고, 고진영은 7월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과 8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우승으로 시즌 4승 고지를 밟았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한국 선수들이 2015년과 2017년 합작한 최다 15승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남은 대회는 6개다. 현재 승률인 50%를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면, 한국 선수들은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LPGA 투어는 3일 개막하는 텍사스 클래식 이후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인 스윙 일정을 시작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l@donga.com

| 한국 선수들의 2019년 LPGA 투어 우승 레이스 |      |
|------------------------------|------|
| 대회                           | 우승자  |
|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    | 지은희  |
| 2월 혼다 LPGA 타이랜드              | 양희영  |
| 3월 HSBC 여자 월드 챔피언십           | 박성현  |
| 뱅크오브로프트 파운더스컵                | 고진영  |
| 4월 ★ANA 인스퍼레이션               | 고진영  |
| 5월 메디힐 챔피언십                  | 김세영  |
| 6월 ★US여자오픈                   | 이정은6 |
|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 박성현  |
| 7월 마라톤 클래식                   | 김세영  |
| ★에비앙 챔피언십                    | 고진영  |
| 8월 스코틀랜드 오픈                  | 허미정  |
|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 고진영  |
| 9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           | 허미정  |

※ ★은 메이저대회